

해외시찰 보고서

-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사례 -

조정1팀 차장 **여** **종** **국**
조정2팀 차장 **최** **영** **훈**

이번 해외시찰 방문국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개국이었으며, 방문처는 모두 6개 기관으로 이 중 신문사와 언론유관기관이 각각 3곳이었다.

시찰기간 동안 각 기관별로 오보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은 방문국의 언론현황 및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한 후, 대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로 기술하였는데 방문처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I. 스위스

스위스에 특별한 언론관계법은 없으며, 다만 연방 헌법 55조에 '언론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다른 조항과 기타 각종 법률 및 각 주의 조례와 경찰법규 등에 의해 언론 자유는 어느 정도 제약되나, 그 대부분은 언론자유

의 남용에 국한하고 있다. 스위스의 법률 중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은 악의적이고 조작된 중상모략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인에 대한 중상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중상이 더욱 엄하게 적용된다.¹⁾

스위스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스위스 언론인연맹(FSJ)에서 언론인연맹 규칙 제27조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선언'에 입각하여 언론인의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언론인의 권리침해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되었다.²⁾ 신문평의회는 독자불만을 접수하는 역할 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자체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며, 심의사항을 매년 자체 간행물에 공표하고 있다.

방문처 1. 노이에 취리허 차이퉁

(Neue Zürcher Zeitung : NZZ)

2004년 기준 스위스의 유료 일간신문은 93개로 249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부수 상위 5개 신문은 「Blick」(27만 5천 부), 「Tages-Anzeiger」(23만 6천 부), 「Mittelland Zeitung」(19만 부),

1) 언론중재위원회(1989, 여름). 스위스 신문평의회. 『언론중재』, 통권 31호, p. 58.

2) 언론중재위원회(1989, 여름). 앞의 책, p. 58.



「Berner Zeitung」(16만 6천 부), 「Neue Zürcher Zeitung」(15만 5천 부) 등이다.³⁾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은 독일어로 '새로운 취리히 신문'이라는 뜻으로 1780년 1월 12일 창간되어 독일어로 발행되고 있다. 세계 10대 고급지 또는 세계 3대 고급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도우파 성향이다. 처음에는 주간지로 창간하였다가 1843년 일간지로 변경하였다. 1997년에 NZZ 온라인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일요판과 월간도 발행하고 있다.

세계의 엘리트 신문은 각기 그 성격이 다양한데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은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와 함께 가장 진지하고 분석적이며 논평을 위주로 하고⁴⁾, 특종이나 선정적 보도는 철저히 배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신문은 여러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1면을 제외한 첫 묶음은 거의 국제기사일 정도로 국제소식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식인, 정부관리, 경제·정치 지도층 인사들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의 구독률이 높다.

세계 주요도시에 특파원 및 통신원 60여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신문의 크기는 한국 신문의 기본인 대판과 타블로이드의 중간 형태인 베를린판형이다. 이 신문은 사실이 따로 없고 장문의 논평, 의견 기사들이 1면 등 주요 면에 실린다. 사실과 기사를 '교활하게' 분리하지 않는다. 현 편집인 마르쿠스 슈필만(지난 4월 취임)은 40살인데 전임자도 40대 초반에 취임해 21년을 재임하였다. NZZ는 1933년부

터 현재까지 편집인이 4명에 불과했다.⁵⁾

NZZ는 인건비 지출이 많고 2000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자 금년에는 3인 공동대표 체제로 변환하고, 그 동안 매우 학술적이며 침울하고 답답한 편집으로 인해 멀어진 독자들을 재확보 하기 위해 1면에 컬러사진을 게재하는 등 새로운 편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사 전체 인원은 550명(각 지역국 인원까지 합칠 경우 2,000여 명)이고, 일간지 편집국 기자는 250명이다.

〈면담 요지〉 대담자: Mr. Kamer 편집부국장

-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창립 역사와 관계가 있다. 1780년 발행 당시의 기사가 국내 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제 뉴스였다. 당시 정부가 신문기사에 대한 검열을 심하게 하여 국내 소식을 쓸 수 없게 되자 외국의 소식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⁶⁾ 국제적인 뉴스를 많이 쓰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다.

- 현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자들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맨은 없지만 독자의 불만은 각 사장⁷⁾ 아래의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있다. 독자들은 신문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역할이 옴부즈맨과 비슷하지만 옴부즈맨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3) 한국언론재단(2006, 5월). 세계언론통계-2005 유럽국가별 신문 종류수·부수·광고. 『MEDIA WORLDWIDE』, p. 83.

4) 이상철(1997). 「세계신문론」. 서울 : 일지사. p. 33.

5) 한겨레, 2006. 7. 6. 자 13면.

6) 스위스는 1767년부터 주에서 검열제를 실시해 오고 있었다. 1798년에 와서 스위스 공화국이 언론자유,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앤서니 스미스(2005). 「세계 신문의 역사」. 서울: 나남. p. 125).

7) 편집담당 이사(편집국장 겸임), 출판담당 이사, 재정담당 이사. 의견 충돌시 편집담당 이사가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

- 1년에 약 250건 정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상의 불만 유형으로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구 등이 있으나 손해배상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

- 정정이나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위치에 게재하며, 그 크기는 원 보도에 비해 작으므로 눈에 띄게 보도해 준다.

-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불만을 제기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독자투고란에 의견을 기고하는 경우는 있다. 그 이유는 스위스에는 투표가 매우 많은데 이 투표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 취리히 주법에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현재 계류 중인 취재원 공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신문평의회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스위스의 신문평의회가 유명 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신문평의회는 독자불만을 접수하는 역할 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자체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 한다. 이 심의사항을 매년 자체 간행물에 공표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시정권고 사항을 수용하나 평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도하기도 한다.

- 독자들은 기사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보통

신문평의회 보다 신문사로 먼저 불만을 제기한다.

- 스위스에는 언론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등의 규율을 받는다.

II.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의 언론구조는 극심한 언론자본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프린트(Mediaprint)⁸⁾가 인쇄매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공영방송인 ORF⁹⁾는 방송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 다양한 여론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¹⁰⁾

1990년 중반 민영방송 송출 허가 와 아울러 2001년에는 민영방송법이 제정되어 민영방송이 출범했으나 2003년에야 전국 방송을 시작한 민영방송의 시장 점유율은 저조한 실정이다.¹¹⁾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한 형성과 신문 판매활동 그리고 언론인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문지원 정책¹²⁾을 펴고 있는데 지원금으로 해마다 약 1,390만 유로를 배정하고 있다.

1. 오스트리아 언론법

1981년 제정되어 2005년 개정된 오스트리아 언론법¹³⁾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8) 독일의 언론제별인 서부독일신문(WAZ), 노이에 크로넨 자이퉁(NKZ) 언론그룹, 쿠리어 언론그룹의 신디케이트가 설립하였다.

9) 1955년 창립되어 독일어로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2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2006 세계언론개황, 해외홍보원).

10) 서명준(2005), 오스트리아의 언론규제와 지원정책[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p. 152.

11) 서명준(2005), 앞의 글.

12) 1985년 '신문진흥법'을 제정하여 일간/주간신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 139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120개사가 지원혜택을 받았다.

13) 'Bundesgesetz über die Presses und publizistische Medien(언론과 인쇄매체에 관한 연방법)'. 이 글에 요약한 부분은 이주관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가 번역하였다.



단일법이다.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부분은 우리 언론중재법과 유사하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주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6조 1항 : 언론매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실현되면, 피해자는 언론기업주(발행인 삭제)에 대하여 인격모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언론매체의 전파방법 및 전파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언론기업주(언론기업에서 언론기업주로 변경)의 경제적 존립유지를 고려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20,000유로(한화 약 2,500만 원)를 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중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50,000유로(한화 약 6,200만 원)를 한도로 한다.

제6조 2항 :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보도이거나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방송에 관한 경우(주의의무 소홀인 경우 제외), 웹사이트의 이용자 게시물에 관한 경우(주의의무 소홀인 경우 제외), 3자가 표현한 것을 진실에 충실히 재현한 것으로서 공표에 우월적 공익이 있는 경우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1항 : 언론매체에서 개인의 고도의 사생활 영역을 그가 공중에서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기술 또는 묘사한 경우, 피해자는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인격모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2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7a조 1항 : 언론매체에서 형사상 피해자 또는 형사상 혐의가 있는 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이름, 사진 또는 당해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표되고, 당해인의 공적 지위, 공적 활동과의 관계 및 기타 공

표로 인한 우월적 이익 없이, 공표로 인해 당해인의 보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인격모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2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7b조 : 언론매체에서 형사상 혐의자나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가 죄가 확인되거나 유죄인 것처럼 기술된 경우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2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7c조 1항 : 언론매체에서 통신 감청, 녹취로부터 얻은 녹음, 사진, 활자적 표현을 보도한 경우, 그 내용이 공개변론에서 공개된 경우가 아닌 한,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5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되나, 공표로 인해 피해자의 경제적 존립 및 사회적 지위가 파괴된 경우에는 100,000유로를 한도로 한다.

제9조 1항 : 정기적 언론매체에 의해 전파된 사실보도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언급된 자연인 또는 법인(관청)은, 반론이 허위이거나 다른 이유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당해 언론매체에 무료로 반론을 공표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3항 : 웹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반론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한 달간(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게시해야 하며, 제목을 초기화면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

2. 오스트리아 신문평의회

오스트리아 신문평의회는 1961년 4개의 단체(신문협회, 언론노조, 잡지협회, 기자·작가공동협회)가 모여 결성하였다. 신문평의회는 인쇄매체와 온라인

.....

신문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권력 기관에 대해 신문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신문평의회는 신문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진실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양측 당사자를 불러 각자 입장을 표명하도록 한다. 불만처리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에 공개한다.¹⁴⁾

신문평의회는 신문협회와 언론노조에서 각각 10인, 기자·작가공동협회와 잡지협회에서 각각 2인으로 하여 총 24명의 명예직으로 구성되었다.

신문평의회는 1995년에 42건을 처리하기도 했으나 불만제기 건수가 계속 감소하여 2002년 이후 해체된 상태이다. 현재 평의회를 재건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07년경에 재건될 예정이라고 한다.

방문처 2. KommAustria(커뮤니케이션청)

롬오스트리아는 2001년 4월 1일 '롬오스트리아법'에 의해 방송의 법률적인 규제를 위해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롬오스트리아는 민영텔레비전방송청과 라디오지역민영방송위원회, 케이블·위성방송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2003년 제정된 통신법에 따라 방송네트워크와 서비스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으며 2004년 신문진흥법이 개정되어 신

문 및 인쇄매체의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

롬오스트리아는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공사(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Ltd.; RTR-GmbH)¹⁵⁾에 지침을 전달하며 공사로부터 방송관련 업무지원을 받는다. 롬오스트리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상위 기구인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Federal Communications Senate, 6인으로 구성)에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롬오스트리아의 주요 업무>

- 민영방송 인허가권 부여
- 방송국(ORF를 포함) 설립 및 운영 허가권 부여
- 민영방송국 감독
- 민영방송국 및 ORF의 광고 심의
- 디지털 방송 추진사업
- 방송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 규제
- 주파수 분배
-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 신문에 보조금 분배

<면담 요지> 대담자: Michael Ogris 청장, Brigitte Zauner-Jelemensky 신문지원담당

- 롬오스트리아는 방송의 오보에 대해 규제나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지원만을

14) 서명준(2005). 앞의 글. p. 170.

15) 2001년 '커뮤니케이션청 및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설치법'에 의해 설립. 방송과 통신 분야가 있으며 롬오스트리아와 통신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다. 방송담당 사장은 연방총리가 임명하고 통신담당 사장은 연방기술교통혁신부장이 임명한다. 직원 수는 약 80명이다. 연방정부 소유이며 연방정부 예산과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일부 충당하는 예산으로 운영한다 {서명준(2005). 앞의 글. p. 173}.



담당하고 있다.

- 신문평의회에 대해 언론인들이 다시 관심을 가져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콤포스트리아도 2005년 이후 이 평의회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기구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 적합한 기본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첫 연구가 발표되었다. 신문평의회는 2007년 경에 재건될 것으로 보인다.

- 오보에 대한 정정결정이나 시정명령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며 콤포스트리아는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언론법에 의해 판결한다.

- ORF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는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에서 담당하나 광고 부분은 콤포스트리아에서 담당한다.

- ORF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그 위반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영방송은 결정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고 있다.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는 ORF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방문처 3. 스텐다드(Der Standard)

오스트리아는 전국지와 지방지를 합쳐 9개 주에서

모두 17종의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197개의 주간신문이 존재한다.

스텐다드는 1988년 10월 Oscar Bronner에 의해 창간된 전국 일간지이다. 창간 초기 독일 슈프링어(Springer) 언론그룹이 주식의 50%를 소유하였지만 1955년 Oscar Bronner가 매수하였다. 1988년 이후 남독일 출판그룹(Süddeutscher Verlag)이 4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¹⁶⁾

국내 뉴스보다는 경제와 외신에 큰 비중과 관심을 갖고 있으며(외신이 50면 중 5면) 비교적 진보적 성향(사민당 지지 경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간 역사가 일천하나 타 언론사에 비해 많은 특파원을 두고 확장일로에 있다.¹⁷⁾

오스트리아 주요 일간지의 발행부수와 구독률은 다음과 같다.

매 체 명	발행부수	구독률(%)
Neue Kronen Zeitung	1백 1만 8천부	43.4
Kleine Zeitung	29만 4천부	12.4
Kurier	25만 8천부	11.1
Oberösterreichische Nachrichten	13만 3천부	5.3
Die Presse	12만 3천부	5.3
Tiroler Tageszeitung	11만 8천 부	5.1
Der Standard	11만 부	5.7

출처: 오스트리아 발행부수 협회 (Austrian Circulation Control: OAK), 2002년

<면담 요지> 대담자: Dr. Eric Frey 편집국장

- 오스트리아 언론법은 매우 엄격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정치문제나 정치인들 보

16) MEDIA IN AUSTRIA, THE FEDERAL PRESS SERVICE VIENNA 2003, p. 9.
17) 2006 세계언론개황, 해외홍보원

도에 대한 판결로 위축을 받는다. 폐소 시에 손해배상액이 크며 언론사는 생존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변호사가 기사를 사전에 열람한다.

- 스텐다드에는 옴부즈맨이 없다. 편집국장과 기자들이 독자들의 불만에 직접 응대하고 있다. 독자들이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 몇 해 전까지 신문평의회가 있었는데 이 평의회 결정에 언론사들이 별로 승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의회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었다. 신문평의회가 재건되기를 바라며 예전보다 큰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독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편집국장이 먼저 담당 기자와 얘기하고 그 다음 담당부서장과 얘기한다.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편집국장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사내 변호사와 협의하도록 하게 한다. 독자들이 소송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이것을 '민중의 스포츠'라고 부르기도 한다.

- 타 언론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최근 5년 동안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난 추세이다. 지금까지 스텐다드가 당한 소송은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극우자유당에서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맞추기 위해 스텐다드를 공격하기도 한다.

- 스텐다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원을 절대로 공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공격적이면서 자신감 있게 처신한다.

방문처 4. 신문협회
(Verband Österreichischer Zeitungen; VÖZ)

오스트리아 신문협회는 지역신문이 발달한 오스트리아 신문들의 경영발전과 신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신문사간 과다경쟁을 제한하며 매체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1946년 5월 4일 설립되었다.

신문발행면수의 상한선을 조정하고 구독료의 협정가격 책정 및 신문사간 광고, 판매의 과당경쟁을 막으며 신문사의 이론적 정립을 위해 신문학자와 언론인 간의 공동연구 등이 주 업무이다.

협회에는 구독자 후원 제도가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교육(NIE)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을 교육하여 청소년들에게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현재 협회에 78개사(일간지 17개, 주간지 및 월간지 61개)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장은 Dr. Horst Pirker 디 프레세 사장, 부회장은 Oscar Bronner 스텐다드 사장 외 3명이다.

〈면담 요지〉 대담자: Dr. Heinz Wittmann 교수,
Hannes Schopf 홍보담당

- 오보로 인한 피해구제 업무는 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회원사들이 불만 제기자와 직접 대화하며 협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 회원사가 원하는 독자층을 유지하고 발행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신입 언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을 운영하며, 언론인만을 양성하는 언론전문대학을 설립하였다. 현직 언론인들이 이 대학에서 언론인 전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 (크로넨 자이퉁과 쿠리어가 오스트리아 신문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창간된 신문들은 정당의 기관지



였다. 정당 신문들에 비해 이 두 신문은 전혀 새롭게 창간된 것이었고 마케팅과 경영에서 결속을 하였다. 독일의 WAZ 그룹(알게마이네 자이퉁 출판그룹)이 크로넨 자이퉁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쿠리어 지분의 49.4%를 소유하고 있다.¹⁸⁾ 여기서 큰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 오보의 경우 원 기사와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게재해 주어야 한다. 인터넷 언론에 관한 사항도 언론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반론보도의 경우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원 보도가 초기 화면에 보도된 경우 반론보도의 제목을 원 보도의 기사 제목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초기화면에 표시하고, 클릭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문평의회는 편파적인 보도, 오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였으나 원래 보도를 하였던 동일 지면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을 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 언론인이 언론인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다.

- 현재 작은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편집국과 불만 제기자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중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 (자율적인 기구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3기관은 외부에서의 통제를 의미한다. 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율적인 통제이다. 예전에 한 신문사가 유명한 장군을 ombudsman으로 임명한 적이 있다. 그 장군은 편집국이나 독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다.

Ⅲ.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은 “신문은 허가 대상일 수 없고 검열 대상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법에 따라 신문이나 잡지는 법원에 등록하기만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는 2005년 현재 약 206개의 일간신문, 약 159개의 통신사 그리고 122개의 광고판매회사가 존재하고 있다.¹⁹⁾ 신문은 가정 배달보다는 대부분 가두에서 판매되고 있다(2001년 우편배달 8.7%, 가판 91.3%).

이탈리아 신문 산업은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거대 신문에 의한 자본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본 집중은 1980년대 이후 베를루스코니(S. Berlusconi)²⁰⁾나 아넬리(G. Agnelli) 같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가들이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출판 산업에 진출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²¹⁾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신문을 가장 적게 읽는 나라 중 하나다. 이러한 낮

18) 독일의 언론재벌이 주로 오스트리아 인쇄매체시장에 진출하였다. 오스트리아 일간신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총 지분 참여 비율은 33%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19) 이선필(2005), 이탈리아의 언론규제와 지원제도[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p. 124.

20) 전 이탈리아 총리로 2006년 4월 총선에서 패해 총리직을 잃었다. 핀인베스트(Fininvest) 미디어 그룹의 총수로서 미디어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였고, 집권 이후에도 공영방송(RAI)을 장악하여 언론인을 해고하고 보도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부패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2006, 11월), 소유 미디어와 돈을 정치권력 유지에 이용. 『MEDIA WORLDWIDE』, p. 30).

21) 이선필(2005), 앞의 글. p. 125.

은 수치는 신문 산업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문지원법 등을 통해 꾸준히 신문 산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방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13개의 지상파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800여 개의 중·소 규모 지방 민영방송국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송시장은 3개의 공영방송(RAI 1, 2, 3)²²⁾과 3개의 민영방송(Canale5, Italia1, Rete4)²³⁾이 지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신문을 규제하는 법으로 신출판법²⁴⁾이 있으며, 방송분야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방송법²⁵⁾이 있다.

방문처 5. 레푸블리카(La Repubblica)

2004년 기준 이탈리아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은 Corriere della Sera(67만 7천 부)이며, 1976년에 창간된 la Repubblica는 62만 2천 부를 발행하였다.²⁶⁾

독립적이지만 중립적이지 않은 신문을 지향하며 좌파계열의 신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4년 크락시, 안드레오티 집권 기간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리면서 유명해졌다. 8개국에 통신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본사는 로마에 소재하고 있다.

Corriere Della Sera와 함께 이탈리아 양대 권위의 하나이다. 90면에 달하는 주말판(II Venerdì)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으며, 97년 5월 2대 주간지인 L'Espresso지와 합병을 통해 경영합리화 도모하고 있다.²⁷⁾

〈면담 요지〉 대담자: Mr. Paolo 독자담당국장

- 다른 경쟁지가 100년 정도 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신문이다. 전통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가볍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편집과 기사에 새로운 면이 많다.

- 객관적이라는 말이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영국의 주요 신문도 선거나 정치적 격동기에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정확히 표현하였다. 레푸블리카도 매우 객관적이기는 하나 중립적이지는 않다. 창립 초기부터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드러냈다.

- (옴부즈맨제도를 폐지한 이유를 묻자)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였다. 레푸블리카가 이탈리아에서 옴부즈맨을 운영한 유일한 신문이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편집국에 불만을 호소하였다. 편집국에서 독자의 불만을 담당하다 보니 더욱더 독자들은 옴부즈맨을 찾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예전에 독자들은 불만내용을 편지로 보냈으나 요즘은 이메일을 이용하고 이에 대해 편집국에서 곧바로 처리해

22) 법적으로 RAI(Radio Televisione Italiana)는 민간 회사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국영기업(최근 민영화됨)이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를 이탈리아 작가협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RAI를 국영방송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강준만(2001). 『세계의 대중매체 3』. 서울: 인물과 사상. p. 167}.

23) 미디어 그룹 핀인베스트(Fininvest) 소유

24) 이탈리아 출판법은 1981년 제정되어 1987년과 2001년 개정되었다. 범명은 「Nuovenorme sull'editoria e sui prodotti editoriali: 제67호법」이다.

25) 197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공·민영방송법', 1997년에 '커뮤니케이션청 설치와 라디오 텔레비전 법', 2004년에 '라디오 텔레비전 시스템과 RAI 방송국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었다.

26) 한국언론재단(2006, 5월). 세계언론통계-2005 유럽국가별 신문 종류수·부수·광고. 『MEDIA WORLDWIDE』. p. 85.

27) 2006 세계언론개황, 해외홍보원



주고 있기 때문에 편집국 밖의 옴부즈맨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 독자의 불만은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되며, 독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원하면 신문사 내의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탈리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

- (독자기구가 아닌 편집국에서 독자의 불만을 처리하면 불편부당한 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질문에 대해) 옴부즈맨 역시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이므로 별 차이가 없다. 르몽드의 옴부즈맨을 잘 알고 있는데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 이 옴부즈맨이 처리하는 형식은 '독자의 입장이 이해된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라는 식으로 거의 비슷하고 매우 타협적이다. 옴부즈맨이 답신에 자신의 의견을 달기 때문에 오히려 덜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 (기자들의 교육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탈리아에는 언론고시기²⁸⁾ 있다. 이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신문사에 취직하여 기자가 될 수 있다. 프리랜서도 이 기자증이 없으면(기자증을 보여주며) 기사를 쓸 수 없다. 협회에서 윤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정직을 시킬 수도 있다.

방문처 6. AGCOM(커뮤니케이션청)

이탈리아 방송의 규제기관은 AGCOM과 경쟁위

원회, '의회 라디오·텔레비전 서비스 지도·감독위원회(의회 방송위원회)'²⁹⁾ 그리고 'RAI 방송위원회'가 있다. 민영방송은 AGCOM과 경쟁위원회에서 규제하고 공영방송은 위의 4개 기관이 모두 규제한다.

AGCOM은 최근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AGCOM 구조와 역할>

- 1997년 '제249호법'에 의해 설치된 방송·통신 전반을 규제하는 독립기구
- 구성
 - Infra/Network 위원회 :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 Service/Products 위원회 :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 전원평의회 : 위원장과 8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
- 의장은 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8명의 위원은 상·하원이 투표를 통해 각 4인씩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³⁰⁾ 임기는 7년 단임
- 역할 : 미디어 산업에 대한 법적·기술적 권한을 가지며, 방송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감독,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조정, 해마다 활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28) 파시스트인 무솔리니 통치시대에 언론 통제를 위해 법무부가 만든 위원회가 입회 여부를 결정하는 기자회를 설립했다. 파시스트 정권 붕괴 후 기자회는 해산됐으나 이번에는 신문사가 기자회에 등록하지 않은 '비자격 기자'를 대거 고용하는 바람에 기존 기자들의 권익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결국 63년 기자회가 부활됐고 기자 선발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문제는 기자회가 폐쇄적인 특권조직으로 변질되고 기자 채용과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공룡으로 변해버렸다(중앙일보, 1996. 11. 14. 자 9면).

29) 의회 방송위원회는 1975년 방송법에 의해 상·하원 의장에 의해 임명되는 상·하원 각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30) 이선필(2004, 하권). 이탈리아 방송시장 규제법규와 정책[세계의 언론법제]. 서울: 한국언론재단. p. 86.

- 재원 : 정부 예산 지원과 각 방송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

- 정부에서 불만을 신청할 경우에도 의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처리한다.

〈면담 요지〉 대답자: Stefano Valentino 변호사

- 위원회 1/2은 여당, 1/2은 야당 인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관할한다. 의장은 현재 교수(2005. 5. 9. 임명)이며, 8명의 위원은 전직 언론인, 법조인 등이다.

- Service/Products 위원회에서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방송에 오보가 있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법원만이 권한을 갖는다. 방송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년에 50건 정도의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 정치적인 문제가 30건, 기타 20건 정도이다. 선거가 있는 해의 처리 건수는 약 80건이다.

- 방송에 불만이 있는 시청자는 먼저 해당 방송사에 불만신청을 해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AGCOM에 신청해야 한다.

- 정정이나 반론보도 요구는 신속히 처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공영방송 RAI에 대해서는 AGCOM과 의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후 합의해 결정하고 방송사에 명령한다.

-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 AGCOM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의회위원회는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불만 신청은 1년에 한 건 정도이다. 주로 총리나 대통령이 신청한 것이므로 많지 않다.

IV. 맺으며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위스에는 특별히 언론관계법이 존재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법 등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단일 언론법이 존재하며 이 법에는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신문과 방송에 반론보도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언론법에 의해 판결한다. 신문평의회는 2002년 해체된 상태이나 이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따르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내년 경에 새로운 모습으로 타나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콤포스트리아는 민영방송에 대하여,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는 공영방송 ORF를 담당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에는 단일 언론법은 없으나 출판법과 방송법이 신문과 방송 분야를 규율하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관할하는 AGCOM은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AGCOM은 방송에 오보가 있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명령할 수도 있는데 방송사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문 신문사 3곳 모두 오보에 대하여 편집국에서



독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움부즈맨과 같은 전담 불만처리인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에 대비해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방문국 모두 오보로 밝혀진 보도에 대하여는 동일 지면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반론보도 등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과 오스트리아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반론보도의 형태 즉, 원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고 1개월 동안 게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정·반론 보도를 독자의 눈에 띄게 해

준다는 스위스 NZZ의 독자 배려 태도는 인상에 남았다.

신문 등 출판물의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하여 시찰국 대부분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기구는 독자의 만족을 주지 못하여 유명무실하였고, 신속하고 간이하며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보대응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를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나라도 머지않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